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하나 된 경기북지회

2004년 9월 창립된 경기북지회는 한강이북의 경기도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으며, 우리 지회의 회원사는 고양시, 의정부시 및 구리시에 분포되어 위치하고 있다. 경기북지회는 초대 임원을 역임한 윤천수(중앙코리아) 전임 지회장과 정주원(제일) 전임 간사의 노고에 힘입어 창립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꾸준한 회원수 증가로 현재에는 18개 법인, 15개 사무소, 총 회원수는 175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지회의 활동은 협회 및 법원 관련 업무, 회원 경조사 및 친목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 관련 업무는 의정부본원과 고양지원 각 1명씩의 법원 간사(조진협(삼창), 박용관(나라))가 경매평가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법원의 경매여비조정을 통해 법인별, 사무소별 여비를 통일하였고, 동일한 출장지라 하더라도 출발지(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에 따라 발생하는 여비의 차이를 조정하는 등 회원사간 혼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회내 친목사업으로는 산악회, 골프모임(북평회, 서평회), 여성평가사회 등으로 산악회(회장 이정희)는 매달 네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경 등반을 하고 있고, 2006년 신설한 여성평가사회는 신정미 감정평가사(중앙코리아)를 중심으로 지역내 여성 선후배들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회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골프모임은 매달 1회씩 월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평회(회장 김승철)는 양주시의레이크우드CC, 서평회(회장 김중구)는 고양시의 뉴코리아CC에서 각각 개최된다. 경기북지회는 지난 9월 29일 제2회 지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로 12개 팀(48명)이 참가하였으며, 김상운 협회장 및 박강수 기획이사가 직접 참가하여 회원들과 실력을 겨루기도 하였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개인전 우승 및 준우승은 핸디캡을 기준으로 최저타를 기록한 회원에게 시상되고, 단체전은 3명 이상이 참가하는 법인 중



에서 3인의 핸디캡 기준 최저타를 기록한 회원사에게 주어졌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개인전 우승은 가온 한호동 감정평가사(-10), 준우승은 동국 송성규 감정평가사(-8), 메달리스트는 삼창 홍승기 감정평가사가 수상하였다. 개인별 핸디캡은 1년간 북평회와 서평회를 통해 기록된 타수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당초 5내지 6언더 정도에서 우승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언더의 놀라운 기록으로 우승자가 결정되었고, 단체전은 가온 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수상하였다.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회는 일부 회원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회원과 전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는 경기북지회의 화합을 다지는 매개로 성장하길 바라며, 향후 지회는 다수의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친목사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기북지회는 2006년 4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 2기 임원진이 출범하면서 한인호 지회장을 추대하였고, 총회 당일에는 산악회원들의 안내에 따라 북한산 등반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특히, 등반대회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회원과 법인에 근무하는 회원간의 교류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향후 경기북지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회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합을 이끌어가는 지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지회와 감정평가업계 전회원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지회 소속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한다.▲

